



## 고려시대 관련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활용

Recent research results and utilization of Buddhist bibliography related to the Goryeo period

---

저자 (Authors)	박광연 Park, Kwang-young
출처 (Source)	<a href="#">사학연구 (132)</a> , 2018.12, 139-173(35 pages) <a href="#">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32)</a> , 2018.12, 139-173(3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사학회</a>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207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2070</a>
APA Style	박광연 (2018). 고려시대 관련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활용. 사학연구(132), 139-17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4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

# 고려시대 관련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활용

---

---

박 광 연

(동국대학교 HK연구교수)

---

머리말

I. 大藏經·敎藏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

II. 고려시대 腹藏典籍의 현황과 연구

III. 기타 불교 텍스트 연구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며, 2018년 7월 27일에 국사편찬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투고일: 2018. 11. 18. ● 심사일: 2018. 11. 20. ● 게재확정일: 2018. 12. 6.
- <https://doi.org/10.31218/TRKH.2018.12.132.139>

## 요약

이 글은 고려 건국 1100년을 기념하여 고려시대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 하에 작성되었다. 필자는 불교서지학에서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고려시대에 작성된 불교 텍스트 자료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2년 이후의 서지학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大藏經·敎藏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 방향을 간단히 설명하였고, 고려시대에 필사되고 간행된 腹藏典籍들을 종합하였다. 또한 대장경·교장 및 복장전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불교 텍스트들(단행불서, 의례집 등)도 소개하였다.

한국의 고대 및 중세의 텍스트 자료 가운데 불교 텍스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 비하여 그 활용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장전적 등의 불교 텍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불교서지학, 불교 텍스트, 대장경, 교장, 복장전적, 복장

## 머리말

본고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자는 기획 의도 하에 작성된 것이다. 인접 학문에서 고려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앞으로의 고려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타진하는 작업이다. 이 가운데 필자는 서지학에서의 고려시대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텍스트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에 필자의 전공을 살려 불교 텍스트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한국 고중세의 텍스트(Text) 자료 가운데는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하 ‘불교 텍스트’라고 함)이 많다. 불교 텍스트는 한국서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지학연구』 창간호(1986)부터 70호(2017.6)까지 불교서지학 논문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서지학연구』에 수록된 논문 전체 828편 중 불교 관련 논문이 229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불교서지학 연구들의 핵심 키워드로 대장경, 단위불서, 한국인쇄문화를 뽑았는데,<sup>1)</sup> 이는 고려시대의 불교 텍스트를 다루는 논문들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인쇄 문화가 발달한 고려시대에 수많은 텍스트들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실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많지 않다. 새롭게 발견되는 텍스트들은 탑이나 佛像에 납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고려·조선시대 불상의 腹藏物(불상의 몸 안에 저장된 물건) 공개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2)</sup> 복장물에는 문자가 적힌

---

1) 김성수, 2017, 「한국서지학회지 『서지학연구』 게재 불교서지학 논문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중앙승가대학원연구논집』 10.

2) 불복장이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60년대였고 이후 꾸준히 복장물이 공개되었는데, 최근 들어 미술사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해졌다. 2017년 8월 11~12일 열린 <Consecrating the Buddha: On the Practice of Interring Objects (bokjang) in Buddhist

각종 텍스트(발원문, 경전류, 다라니류, 物目記 등)뿐만 아니라 의복, 직물, 사리, 사리통, 五寶瓶, 候鈴, 五香, 五藥, 五寶, 五穀, 色絲, 錦囊 등 다양한 물목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불복장 연구는 서지학뿐만 아니라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이들 자료들은 當代 유물이란 점에서 1차 史料로서의 가치도 지닌다.<sup>3)</sup>

서지학에서는 불교 텍스트들을 간행 방식에 따라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으로 구분하고, 대장경과 다라니·만다라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 불장물 가운데 포함된 텍스트들은 ‘腹藏典籍’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 지면 관계상 고려시대의 필사, 목판, 활자 자료를 모두 소개하지는 못한다.<sup>4)</sup>

---

Statues> 학술대회(Co-hos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and Humanities Korea Project,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in Dongguk University)에서 발표된 논문들 및 정은우·신은재, 2018,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 3) 불장물 외에도 역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불교 자료들이 많다. 2018년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많은 박물관에서 고려시대 관련 기획 전시를 개최 또는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를 주요 주제로 하는 국립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부여박물관의 <개태사開泰寺 : 태평성대 고려高麗를 열다>, 대구박물관의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청주박물관의 <중원의 고려 사찰 : 사람과 바랍願>, 춘천박물관의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담은 얼굴>, 미륵사지박물관의 <고려시대의 미륵사>. 이밖에도 경북대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등 대학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유물을 공개하였는데, 역시 불교 관련 유물이 많다.
- 4) 고려시대 寫經 자료는 권회경, 2006, 『고려의 사경』, 도서출판 글고운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고려시대 사경은 재료와 발원자에 따라 구분하는데, 재료에 따라 목서경, 금자경, 은자경으로, 발원자에 따라 국왕발원사경, 개인발원사경으로 나뉜다. 대상 경전으로는 『法華經』이 제일 많고, 『華嚴經』, 『金剛經』, 『金光明經』, 『阿彌陀經』, 『地藏菩薩本願經』, 『父母恩重經』, 『楞嚴經』 등의 사경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사경은 목종 7년(1006) 7월의 『감지금자대보적경』 권21(일본 교토박물관 소장)이고, 충렬왕 때 금자원 은자원을 설립하여 대량으로 사정하였다. 木版本 자료로는 각종 불경과 다라니들이 있다. 신라 때부터 목판 인쇄술이 있었고, 오대~북송 초기에 인쇄술과 판본들이 수입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충지사 불복장에 포함되어 있던 1007년(목종 8)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이 가장 오래된 본이다. 고려 목판본 중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 교장을 제외하면 寺刹板, 私家版, 官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찰판 불서이다.

2002년에 간행된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에서 당시까지 공개된 고려시대 텍스트들을 목판본, 대장경, 활자본, 다라니·만다라, 사경, 고문서, 불복장물, 구결로 구분하여 총정리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002년 이후의 서지학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불교 텍스트들과 이에 대한 연구 경향을 다음의 세 절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려시대 불교 텍스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大藏經·敎藏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한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 방향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복장전적들 가운데 고려시대에 필사되고 간행된 자료들을 정리함으로써, 고려시대사 연구자들의 접근을 돕고자 한다. 대장경이나 복장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불교 텍스트들(단행불서, 의례집 등)도 별도의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sup>6)</sup>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불교 텍스트들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고려시대의 지방사회사 연구에 香徒 등 지방의 佛事 관련 기록들을 적극 활용했던 것처럼,<sup>7)</sup>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려시대사 연구자들이 복장물 등 불교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한다. 필자의 역량상, 佛敎史 분야에 한정하여 소개한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맺도록 하겠다.

---

5)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6) 관련 논문들을 모두 망라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놓친 논문들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

7)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출판부; 구산우, 2003,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 연구』, 해안 등.

## I. 大藏經·教藏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

서지학은 물론 역사학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불교 텍스트는 대장경과 교장이다.<sup>8)</sup>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를 衆經, 一切經, 三藏經, 藏經 등으로 총칭하다가 唐代부터 大藏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991년(성종 10)에 唐에서 제작한 開寶勅版大藏經(이하 ‘개보장’)이 전래되면서 고려에서도 대장경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 1. 初造大藏經

초조대장경(이하 ‘초조장’)의 판각 시기는 1011년(현종 2)부터 1087년(선종 4)까지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宋本과 契丹本에 기초를 두었는데, 국가에서 주도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찰판과 달리 각 장마다 판수제, 권차, 장차, 함차가 책장 앞에 새겨져 있고, 본문 행수와 자수는 첫

- 
- 8) 대장경 및 교장 관련 역사학 전공자들의 논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홍식, 1990, 「고려고종판대장경의 조성경위와 사상성」, 『역사교육논집』 13·14; 김윤곤, 1996, 「고려대장경의 동시대본과 조성주체에 대한 고찰」, 『석당논총』 24; 최영호, 1997, 「해인사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의 판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최영호, 1999, 「해인사소장본 『大藏一覽集』 刻成시기의 재검토와 판각의 현실관」, 『한국중세사연구』 6; 최연주, 2005,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고문화』 66; 정병삼, 2011,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27; 정병삼, 2011, 「고려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30; 최영호, 2012, 「해인사에 소장된 江華京板 『고려대장경』의 ‘外藏’ 연구 2 : 高麗經板의 조성성격」, 『문물연구』 22; 임혜경, 2012,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과 그 의의」, 『한국사론』 58; 채상식, 2013, 「『고려국신조대장교장별록』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46; 박용진, 2016,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서지학연구』 67; 박용진, 2017, 「教藏의 成立과 역사적 변천」, 『서지학연구』 69 등.

장이 22행 14자, 그 이하는 23행 14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서지적 특징을 가진 초조장의 현존본을 찾기 위해 국내외 조사가 이루어졌다. 1984년 일본 쓰시마섬의 학술조사에서 『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 중 총 584권을 발견하였고, 이후 이키섬 安國寺 및 교토 南禪寺에 초조장이 많이 收藏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9)</sup>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초조장 촬영 및 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05년에는 국내외소장본 중 일부인 170여 종을 영인하였다.

## 2. 敎藏

초조장의 간행이 끝나갈 무렵인 1073년(문종 27)에 義天(1055~1101)은 「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국왕에게 올려 敎藏(불교 경전의 주석서들)을 수집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선종이 즉위한 후에 다시 「大宣王諸宗敎藏彫印疏」를 올렸으나 또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宋에 가서 3,000여 권의 장서를 모았다. 의천은 귀국 후에도 계속 교장을 수집하였고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간행에 착수하였다. 금산사 광고원에서 교장을 간행하였는데, 1083년(선종 즉위)부터 1097년(숙종 2)까지 모두 32부 353권에 이른다. 1089년 2월에는 해인사에서 『天台四敎儀』를 중각하였다.<sup>10)</sup> 1090년(선종 7)에 편찬한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약 1,000여 종 4,800권의 서명이 전한다.

교장·『신편제중교장총록』에 대한 초기 연구가 문헌의 내용 및 사상사적 의의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면, 최근에는 초조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실물 자료를 찾는 작업이 활발하다.<sup>11)</sup> 간기가 있는 교장의 초간 원

9) 남권희, 2007, 「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 『서지학연구』 36.

10) 오영섭, 2013, 「교장의 간행 방식과 망실」, 『서지학연구』 54.

11) 남권희, 2016, 「일본 소재 불교 교장문헌의 서지조사」, 『서지학연구』 67.

본은 2종뿐으로, 일본에 있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20권(40축 완질 권자본)과 『貞元新譯華嚴經疏』 권10(零本 1축, 1095년 간행)이다. 국내에는 『注仁王護國般若經』 권1-4와 조선시대 번각본 등이 있다. 발견한 실물 자료를 대조·교감에 활용하거나<sup>12)</sup> 교장의 수집·찬술 배경을 다시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sup>13)</sup> 앞으로의 연구방법론<sup>14)</sup>도 모색하고 있다.

### 3. 再造大藏經

1231년(고종 18) 초조장이 소실된 후, 1236년(고종 23)에 다시 대장경 간행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에 마쳤다. 재조대장경(이하 ‘재조장’이라 함)에는 초조장에 없던 卷末 기록이 있는데, 이를 간기로 보기도 하고, 造成記로 이해하기도 한다. 권말 기록에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高麗國 + 奉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재조장의 역사적 가치에 비하여 이에 관한 문헌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sup>15)</sup> 문헌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합천 해인사 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經板의 印經本을 대상으로 조성의 흔적을 추적하였다. 刻手 분석을 통해 재조장 판각에 지방 여러 사원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sup>16)</sup> 해인사 寺刊板에 대한 서지적 분석도 이루어져<sup>17)</sup> 한

---

12) 박용진, 2016, 앞의 논문.

13) 김성수, 2014, 『의천 재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연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8; 김성수, 2016, 『『신편재종교장총록』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6.

14) 남권희·전재동, 2017, 『재종교장 문헌 연구 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 『서지학연구』 69.

15) 재조장 관련 문헌기록으로는 『고려사』 열전 최충헌, 『고려사』 세가 고종 38년(1251) 9월 25일, 『동국이상국집』의 <대장각판군신기교문>이 있다.

16) 최연주, 2006, 『고려대장경 연구』, 경인문화사; 최영호, 2008,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최영호, 2009,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조성기구와 판각 공간』, 세종출판사.

국 찬술 佛書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sup>18)</sup>

재조장의 간행 장소로 거론되던 대장도감 및 남해분사도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재조장을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 동안 대장도감과 남해분사도감에서 간행하였다고 보고, 총 1,514종 81,350판 가운데 중복되는 108판을 제외한 81,242판에서 대장도감판이 72,610판이고, 남해분사도감판이 8,632판이라는 구체적인 판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9)</sup> 이와 달리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이 판각처가 아니라 대장도감의 지휘 아래 지방의 분사도감에서 판각 기능을 보유하고 있던 여러 사원의 협력을 받아 분담 조판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20)</sup> 한편 개보장, 초조장, 재조장의 관계에 대해, 초조장은 개보장의 수정 복각본이고, 재조장은 국본, 거란본과 대교하여 수정하고 송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였음을 밝혔다.<sup>21)</sup>

## II. 고려시대 腹藏典籍의 현황과 연구

현재까지 학계에 공개된 불복장 가운데 고려시대에 쓰여진 발원문이나 중수기, 고려시대에 간행한 經論 및 다라니, 교장의 중수본 등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서술의 편의상 불상의 조성시기에 따라 절을 나누고, 전

- 
- 17) 임기영, 2009,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경복대 박사학위논문; 최영호, 2016, 「해인사대장경판(海印寺大藏經板)에 포함된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보존방안」, 『문물연구』 30.
  - 18) 김천학, 2018, 「元曉 『起信論別記·疏』의 전승 조사와 定本化 시도」, 『서지학연구』 73.
  - 19) 강순애, 2010,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6.
  - 20) 송일기, 2011a,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서지학연구』 49.
  - 21) 유부현, 2011, 「고려장(초조장·재조장)의 저본에 대한 일고」, 『서지학연구』 48; 강순애, 2012, 「고려 팔만대장경 『법원주립』의 판각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1.

적을 중수기 또는 발원문, 경전, 다라니로 구분하였다. 고려시대에 쓰여진 불교 관련 복장전적을 일람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하였다.

### 1. 고려시대 불상 중 고려시대 텍스트

	불상명	성격	자료 시기 및 명칭
1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경전	대비로자나성불경 1095년 정원신역화엄경소 권6 고려 금강반야바라밀경, 장엄정도분 제10 고려 백지묵서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관공품)
		발원문	所詮東 雜文
		다라니	1007년 개관 일체여래심비밀정신사리보협인다라니 23장 범서총지집 일부 범자다라니 (중앙에 대일여래)
2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경전	12세기 法界觀食論 권3 초조장 대반야바라밀경 권269 13세기 금광명경 권2 13세기 대방광불화엄경 권39 14세기 자비도량참법 권9
		다라니	1239년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1239년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13세기 육자대명왕진언 13세기 도상불심주 팔엽심연삼십칠존만다라 일체여래심전신사리보협인진언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3	서울 개운사 목조여래좌상	발원문	1274년 중간대사원문 1322년 최춘 원문 1322년 천정 허흥 발원문
		경전	화엄경 백서묵지사경 권24, 26, 33, 36, 39, 56 등 보살본행품 권중 영보경 권4
4	서울 수국사	중수기	1점

고려시대 관련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활용

	목조아미타불좌상	경전	11세기 대방광불화엄경 권26 12세기 묘법연화경 권6 13세기 밀교대장 권9 13세기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13세기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皇帝陛下 性仁施納 13세기 불경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권상 普寧藏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 18, 88, 144, 145, 146
		다라니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금강계만다라 佛腹藏香徒板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5	은양민속박물관 관음보살좌상	발원문	1301년 주성미타복장입안발원문 창녕군부인 장씨 1301년 법영 발원문 1302년 창녕군부인 장씨 발원문 1302년 김도 발원문 고려 영가군부인 김씨 발원문 고려 유시우 등 13인의 명부
		다라니	1292년 일체여래심비밀전신보협인다라니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6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1346년 가야산문수사당주미타복장발원문 1346년 전인혁발원문 고려 가야산문수산당주미타복장동원문 고려 직물 (시주자명단)
		경전	12세기 묘법연화경 권7 12세기 구역인왕경, 12세기 고험관세음경 12세기 차인출불공역대화수경 (이상 교장 간기 있음) 1287년 大華受經 1288년 묘법연화경 권7
		다라니	관음42수진언 연화판다라니 범자원권다라니 단온진언 불정방무구광명다리 등
7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중수기	1388년 重修記文 羅州 修補改金

		경전	13세기 소자본 법화경 주해본 금강경
		다라니	1184년 대수구다라니 木記 있음
8	1322년 천수관음보살상	발원문	1322년 천수관음주성원문
		경전	현세현재불명경 지장보살본원경 대방광불화엄경 40권
		다라니	1301년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금강계만다라 범자원상만다라
9	강릉 보현사 건칠목조보살좌상	조상기	1292년 至元二十九年 四月日
10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발원문	1330년 관음주성결연문
		다라니	금강계만다라
11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아미타삼존불상	발원문	(아미타불상) 1333년 주복장 비구 오희, 연기법송, 발원자 (관음보살상) 1313년 통영 발원, 발원자
12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발원문	1346년 발원문 백운의 성불원문
13	리움 은제아미타여래삼존 좌상	발원문	1383년 대덕동발원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3세기 불상으로, 남송대 불상 양식을 지니고 있다. 1007년에 개관한 보협인다라니경 23장, 1095년 간기의 『정원신역화엄경소』 권6을 비롯하여 많은 고려시대 유물이 나왔다.<sup>22)</sup>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1560년(가정 39) 간기의 발원문에 의하면, 지원 5년(1269 또는 1339)에 개금 불사하였고, 그 뒤에 두 차례 중수하였다. 복장물(19건 208점)은 경전류가 다수인데, 초조장 인출본을 비롯하여

22) 서병패, 2008, 「안동보광사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 『성보』 10;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2009,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256쪽.

중요한 고려시대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sup>23)</sup>

서울 개운사 목조여래좌상 복장물에는 3종의 발원문이 있다. 1274년 중간대사 원문에서는 자신의 말을 팔아 금을 구입해 불상을 개금하면서 먼저 사망한 부모와 친족들 자신의 극락왕생 기원하고 있다. 1322년 최춘 원문에서는 불상 개금, 복장 의식 때 오승포 1필을 시납하면서 먼저 사망한 부모와 친족들 자신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1322년 천정 허홍 발원문에서는 10가지 서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충선왕의 환국도 기원하였다.<sup>24)</sup>

1459년(세조 5)에 죽은 세자(후에 덕종으로 추존)의 극락왕생을 위해 세조의 명의로 세운 수국사의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274년에 중수한 개운사 불상이나 1280년에 중수한 개심사 불상과 매우 흡사하다. 복장물은 중수기 3점, 전적류 24점, 다라니류 20점이고, 그 가운데 고려시대의 전적류 7점, 다라니류 20점, 중수기 1점이 있다. 다라니에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己亥(1239)十月日 侍中崔宗峻”이 새겨져 있는데, 최종준(?~1246)은 철원 최씨로 최유청의 손자이다. 불상의 원소재지는 철원의 深源寺이고, 1239년에 처음 조성한 후, 1389년에 1차 중수하였다. 1393년(태조 2)에 사찰 화재로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은 소실된 듯하다.<sup>25)</sup>

온양민속박물관 관음보살좌상은 불상은 없고 복장물만 남아 있다.<sup>26)</sup>

- 
- 23) 이용윤, 2012, 「불상봉안의식의 정수, 복장」, 『불복장의식의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은우, 2017,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32; 남권희, 2017b,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다라니와 전적자료」, 『미술사연구』 32.
  - 24) 문명대, 1996,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장 취봉사목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8;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 25) 문명대, 2007, 「수국사 고려(1239년)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5; 송일기, 2014,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전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 26) 온양민속박물관편,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도 불상은 현재 도난당했고, 복장물만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안립 당시의 복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sup>27)</sup>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13~14세기)이나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1274년)과 거의 흡사하나, 수인이 조금 다르다. 최초 복장은 12세기 말엽에서 13세기 사이로 추정되고, 1388년에 중수하였다. 중원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후에 나주로 옮겨진 듯하다. 이 불상의 복장물 가운데 13세기 소자본 범화경은 宋本을 저본으로 13세기 전후한 시기에 복각한 판본이고, 주해본 금강경은 청주목관원인 갈남성이 진각국사 혜심이 소유하고 있던 송본을 얻어와 판하므로 복각한 판본이다.<sup>28)</sup>

1322년에 제작한 천수관음보살상은 불상은 없어지고 복장물만 남아 있다.<sup>29)</sup>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쓰시마섬의 觀音寺에 보관되었던 불상으로, 1951년에 복장물과 결연문(발원문)이 확인·소개되었다. 1330년에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하여 승려 계진이 승속 32명 등 서로 인연 있는 중생들과 힘을 합쳐 불상을 주조하였다고 한다.<sup>30)</sup>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아미타삼존불상<sup>31)</sup>, 청양 장곡사 금동여래좌상,<sup>32)</sup> 리움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는 고려시대 전적은 없지만 14세기에 씌여진 상세한 발원문이 확인되었다.<sup>33)</sup>

- 
- 27) 강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미술자료』 18;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109쪽.
  - 28) 송일기, 2004,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전적고」, 『서지학보』 28.
  - 29)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139쪽.
  - 30) 정은우, 2013, 「西日本地域の高麗佛像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 『동아시아미술학』 14;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151쪽.
  - 31) 신소연, 2016,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서2』, 국립중앙박물관.
  - 32) 신은제, 2015,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 발원문과 발원자들」, 『미술사연구』 29; 최연식, 2015,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신앙내용과 제작 주체-발원문 내용의 검토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9.

이밖에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 복장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복장 구멍을 막은 봉합목 안쪽에 1280년(至元 17) 목서명이 있어서(“至元十七年庚辰 十一月十四日別立 僧齋色修補開心社 堂主無量壽如來(하락)”) 고려시대에 복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sup>34)</sup>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은 22cm의 작은 금동여래좌상으로, 불상 밑면에 四十二惠威燈光佛이라 적혀 있다. 1976년 불상 조사 시, 복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개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상이 작아 경전류는 없는 듯하다.<sup>35)</sup>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1362년(공민왕 11)의 불상조성개금기가 발견되었다.<sup>36)</sup>

## 2. 조선시대 불상 내 고려시대 전적

다음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에 간행된 불교 전적들을 정리하였다.

	불상명	성격	자료 시기 및 명칭
14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경전	<b>- 필사</b> 1348년 상지은니대반야경 권48, 210, 259, 561 1348년 상지은니방광반야바라밀경 권12 1348년 상지은니불설대방광심륜경 권5 1348년 자지은니등집중덕삼매경 권하 1370년 백지금니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고려말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25 고려말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 6

33) 정은우, 2011, 「1383년명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 『삼성미술관리움 연구논문집』 6;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235쪽.

34) 최성은, 2008, 「13세기 목조아미타불상과 복장목서명」, 『한국사학보』 30.

35)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259쪽; 이용윤, 2012, 앞의 글.

36) 문명대, 1985, 「고려 소목불상의 연구: 원효사 소천불상과 봉림사 목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66·167.

		<p>14세기초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b>- 목판</b>          숙종 대방광불화엄경 권26          고종 선문염송집, 법원주립          1236년 묘법연화경 권3, 6, 7          1300년 불설부모은중경          1342년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1370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4-7, 8-9          1370년 묘법연화경 권7          1375년 정본일체여래대불정백산개총지          1378년 불설대보부모은중경          1378년 법화삼매참조선강의 권하          12-13세기 대방광불화엄경 권10, 22, 48, 53, 55, 79          13-14세기 대방광불화엄경 권74          고려후기 불설불모출생삼법장만야바라밀다경 권12          고려후기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고려말 대방광불화엄경소 권97          고려말 묘법연화경 권6          고려말 금광명경 권1          고려말 불설예수시왕생칠경          고려말 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상지2          여말선초 묘법연화경 권1          여말선초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p>
<p>15</p>	<p>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 시 왕상 · 나한상</p>	<p>경전</p> <p>1246년 佛說豫修十往生七經 鄭晏 제작. 해인사 고려각판.          1247년 受八戒齋文(丁未十月日輪山八戒香徒丞同正金頴誌)          1378년 鷲菴寺刊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1383년 백련암간 묘법연화경          1370년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成化十年秋八月日... 金守          溫奉教謹跋)          1376년 예념미타도량참법 朴免妥跋文本</p>
<p>16</p>	<p>순천 송광사 사천왕상</p>	<p>경전</p> <p>1317년 과주묘법연화경 권7          -이하 간경도감에서의 교장 중수본          성유식론의경초 권12          묘법연화경현의 권3, 4          묘법연화경찬술 권5, 6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 2          법화문구기 권5, 6          성유식논요의등초 권3, 4          성유식론술기 권6</p>

고려시대 관련 불교서지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활용

			인왕호국만야경소범행초 권5, 6
		다라니	고려 대위덕경다라니 권4
17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 좌상	경진	선문염송집 1종
18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좌상	경진	13세기중반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8
19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상 <sup>37)</sup>	다라니	1375년 諸陀羅尼經(朴免 발원문)
20	공주 감사 소조보살입상 <sup>38)</sup>	경진	1352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1388년 백지묵서사경 금강반야반라밀경(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일승법계도, 표훈대덕발원문 합철)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 유물(보물 959호)<sup>39)</sup>,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시왕상·나한상 복장 유물(보물 제1470호)<sup>40)</sup>,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 유물(보물 1468호)<sup>41)</sup>은 모두 보물로 지정된 것들로, 수많은 불교 텍스트가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37) 남권희, 2017a,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소자 총지진언집 연구」, 『서지학연구』 71, 344쪽.
- 38) 정각, 2017, 「감사 소조보살입상 腹藏 백지묵서사경 고찰 試論-일승법계도와 표훈대덕발원문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46.
- 39)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전적에 대하여(상)」, 『서지학보』 1;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전적에 대하여(하)」, 『서지학보』 2; 김성수, 2017,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목판인쇄본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2.
- 40) 강순애, 2005,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전적고」, 『서지학연구』 32; 정각, 2010, 「영광 불갑사 불복장 의식관계 전적」, 『서지학보』 35; 송일기·정왕근, 2010, 「영광 불갑사 복장 불서의 성격」, 『서지학보』 35; 송일기, 2011b, 「영광 불갑사 복장본 「묘법연화경」 권3의 간년 문제」, 『서지학연구』 48.
- 41) 강순애 외, 2006,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 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송일기, 2014, 『송광사 정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 순천 조계산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의 조명』, 송광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복장물로 『법화경』 7종, 『선문염송집』 1종, 『육경합부』 1종, 『지장보살본원경』 1종 총 10종의 전적과 발원문, 후령통, 다라니와 진언 400여 장, 충전지 130여 장, 기타 불상 파편 몇 점, 칠성도 및 변상도 낙장 2장, 변상도 낙장 2장 등이 있다.<sup>42)</sup> 이 가운데 『선문염송집』이 고려 재조장 보유판을 後印한 것이다.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좌상,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상,<sup>43)</sup> 공주 갑사 소조보살입상<sup>44)</sup>에서도 고려시대 전적이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소개한 복장전적들의 연대는 서지학자들에 의해, 불상의 연대는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교 텍스트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발굴, 제작 연대의 비정, 서지 계통의 추적 등의 기초 작업 필요한데, 이는 서지학이나 미술사학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가 높은 문헌에 대해서는 별도의 깊이 있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수국사 아미타불상의 『밀교대장』 권9,<sup>45)</sup> 개운사 아미타불상의 『화엄경』,<sup>46)</sup> 영광 불감사의 『묘법연화경』 권2,<sup>47)</sup>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sup>48)</sup>에 대한 논문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복

---

42) 윤상기, 2016,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전적 연구」, 『서지학연구』 65.

43) 남권희, 2017a, 앞의 논문, 344쪽.

44) 정각, 2017, 앞의 논문.

45) 남권희, 2014, 「고려시대 『밀교대장』 권9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밀교대장』 90권 가운데 현재 권9과 권61 실물이 확인되었다. 실답자행과 한자음행을 병기시켰고, 권말에 音義가 있다. 재조대장경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밀교대장』 권61에 대해서는 박광현, 2014, 「고려본 『밀교대장』 권61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참조.

46) 송일기, 2010,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본 「화엄경」 연구」, 『서지학연구』 47; 송일기, 2012, 「개운사본 楮本 「화엄경」 권33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1.

47) 卷首題 기재 형식 및 왕건 이름 建자 破획을 근거로,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이후의 재위기간 동안 판각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송일기, 2011b, 앞의 논문.

48) 김성수, 2018, 「새로 발견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

장전적의 공개로 고려시대 불교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자 간행의 흐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간행·유통된 밀교 문헌 가운데 민간 간행본을 시대별로 나열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고,<sup>49)</sup> 11세기 다라니(보광사 복장), 12세기 다라니(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 및 『범서총지집』, 13세기 『범서총지집』과 『마리지천다라니경』, 14세기 『범서총지집』(1302년명 아미타불 복장)과 제다라니경(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상 복장)과 같이 절첩본 소자 다라니경을 시대별로 정리하기도 하였다.<sup>50)</sup>

### Ⅲ. 기타 불교 텍스트 연구

불복장 이외에 최근 서지학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고려시대 불교 텍스트로는 석가탑묵서지편,<sup>51)</sup> 『御製秘藏詮』, 『天台四教儀』, 『人天眼目』, 『中禮文』 등이 있고, 證道歌字의 출현을 계기로 금속활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우선 『어제비장전』은 북송 태종(재위 976~997)이 찬술한 문헌으로, 불교의 깊은 뜻을 시와 부 형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모두 30권이다. 이 문헌은 현재 개보장 초본, 개보장 수정본, 초조본, 재조본, 조성장본이 모두 남아 있어 서로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되고 있다. 초초장 『어

---

학연구』 73. 저본은 송 사문 廣鈞이 재상교하여 景德 연간(1004~1007)에 간행한 것이다. 태조, 定宗, 목종, 선종의 피휘자를 사용하였고, 지질 등으로 볼 때 14세기 초(전기)에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9) 임기영, 2014,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서지학연구』 58.

50) 남권희, 2017a, 앞의 논문.

51) 김성수, 2008, 「석가탑 묵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의 간행 연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에서 석가탑에 납입한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의 것이라고 하였다.

제비장전』의 경우 개보장 수정본을 그대로 판각하였고, 재조장 『어제비장전』은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한다.<sup>52)</sup>

『천태사교의』는 諦觀이 찬한 천태학 개론서로서, 동아시아 천태사상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책이다. 송대 천태종 및 일본 천태종에서 증시하여, 일본의 경우 그 주석서가 50여 종에 달한다. 국내 유통본은 많지 않은데, 최근 1089년 해인사 중각본[大安五年歲次己巳二月日海印寺重刻]과 1315년 기림사 소장의 기복도감본[二年乙酉五月日祈福都監開板]이 알려져 있다.<sup>53)</sup>

『인천안목』은 송의 晦庵 智昭가 禪의 종지를 편찬한 것으로, 이후 임제종 대혜과의 物初 大觀이 1258년에 수정하였고, 원의 治祐가 1317년에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순서로 배열하여 중간하였다. 당시 3권 체제였고,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3권본이다. 1357년 원의 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姜金剛이 간행한 것을 회암사에서 번각한 목판본이 현존하고, 5종의 인출본(양덕사 소장본, 회암사간본, 송광사간본, 서대사간본, 문수전 중수본) 모두 “至正十七年丁酉(1357)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는 간기가 있다.<sup>54)</sup>

水陸齋를 성행하기 위한 절차를 기록한 의식집인 『中禮文』에 대한 연구가 있다. 북송대 熙寧 연간에 楊諤이 편찬한 『天地冥陽水陸儀文』을 산삭하여 금 仔夔가 100편의 『천지명양수륙의문』을 찬집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1342년(충혜왕 복위 3) 고려 승려 竹菴이 『天地冥陽水陸齋儀

---

52) 유부현, 2010,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문자이동과 교감』, 『서지학연구』 47; 유부현, 2010, 『초조장 어제비장전 판화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5; 유부현, 2013,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53) 최종남, 2017, 『天台四教儀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 연구-해인사중각본, 기복도감본, 대정장본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54) 송정숙·정영식, 2011, 『『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서지학연구』 50.

纂要』를 편찬하였는데, 이를 줄여 『중례문』이라고 한다. 죽암은 판조계사와 연복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왕실 내원과 역정사에 머물렀다. 쌍봉사본에 이제현(1287~1367)이 1342년에 쓴 발문이 있다. 수륙재는 고려시대에 유입되어 조선초기 왕실에서 크게 성행하였고, 세종(1418~1450) 때는 국가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불교의식이 되었다.<sup>55)</sup>

2010년 9월에 금속활자 실물이 공개된 이후 금속활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출 금속활자를 『남명천화상증도가』 말미에 실린 진양공 최이(?~1249)의 1239년 9월 발문에서 “重彫鑄字本”(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다시 새겼다)이라고 한 데 근거하여 ‘증도가자’라고 불렀다.<sup>56)</sup> 이 증도가자는 서예사에서 볼 때, 1125년에 건립한 「대각국사비」 이후, 그리고 1275~83년 사이에 제작한 은니사경 이전에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57)</sup> 『직지』와 『자비도량참법집해』와의 활자 비교,<sup>58)</sup> 고려대학교 소장 고려본 『심요법문』 발문과 증도가자의 비교,<sup>59)</sup> 증도가자의 주조법<sup>60)</sup> 등 진위 여부를 떠나 증도가자의 등장이 고려시대 금속활자 연구를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하다.<sup>61)</sup>

한편 국내에 현존하는 송에서 간행된 문헌[宋本], 원에서 간행된 문헌[元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원본 가운데 원판대장경인 磧砂藏, 普寧藏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sup>62)</sup>

55) 송일기·한지희, 2009,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편찬고」, 『서지학연구』 43.

56) 남권희, 2010, 「證道歌字 발견과 『남명천화상증도가』의 연구」, 『서지학보』 36.

57) 이완우, 2012, 「신출 금속활자와 고려시대 서예사」, 『서지학보』 39.

58) 이승철, 2012, 「『직지』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활자분류 비교」, 『서지학보』 39.

59) 유부현, 2012, 「『청량담순중심요법문』과 『남명천화상증도가』의 비교 고찰」, 『서지학보』 39.

60) 남권희, 2012,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주조법과 인쇄기술사적 분석」, 『서지학보』 39.

61) 옥영정, 2012,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서지학보』 39.

62) 옥영정, 2012, 「국내 현존 송·원본의 조사와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52.

## 맺음말

### - 불교 텍스트를 활용한 역사 서술

919년(태조 2) 태조 왕건은 나라를 건국하고 1년이 지나 고려의 도읍 내에 10개의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sup>63)</sup> 이 10寺의 창건 기록은 『고려사』 한 행에 불과하지만,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면 개경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경의 교통 요지, 풍수 명당에는 어김없이 사원이 자리하였다.<sup>64)</sup> 왕실 조상을 모신 태묘가 승인문 밖 부흥산 아래에 자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sup>65)</sup>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상좌부 전통의 불교국가들에 견주어보면 고려는 ‘불교국가’가 아니지만, 태조 때부터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불교 및 불교도의 영향이 있었음을<sup>66)</sup> 불교 텍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불교 유물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교 텍스트를 활용한 불교사 연구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허홍식이 있는데, 그는 『호산록』,<sup>67)</sup> 『원종문류』,<sup>68)</sup> 『백가의 집』,<sup>69)</sup> 『삼교어록』<sup>70)</sup> 등의 문헌을 처음 소개하였고, 지공,<sup>71)</sup> 몽산 덕이<sup>72)</sup>

---

63) 『고려사』 卷1, 「世家」 1, 太祖 2年, “三月 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 兩京塔廟, 肖像之廢缺者, 並令修葺.”

64)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30~31쪽.

65)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58쪽 (그림2) 개경의 모습.

66) 박광연, 2014, 「왕즉불」, 『테마한국불교3』, 동국대출판부.

67) 허홍식, 1989, 「호산록의 새로운 사본과 보완」, 『대구사학』 36.

68) 허홍식, 1991, 「의친의 원종문류와 廓心의 집해」, 『서지학보』 5.

69) 허홍식, 1994, 「임유정의 『백가의집』」, 『서지학보』 12.

70) 허홍식, 1998, 「삼교어록의 서지와 사상적 특징」, 『서지학보』 22; 허홍식, 2005, 「三教語錄의 서지와 장서각본의 중요성」, 『장서각』 13.

71) 허홍식, 1989, 「지공의 사상형성과 현존저술」, 『동방학지』 61; 허홍식, 1991, 「지공의 무생계첩과 무생계경」, 『서지학보』 4.

72) 허홍식, 1995, 「몽산덕이의 『直註道德經』과 그 사상」, 『정신문화연구』 18-4; 허홍

등의 저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그는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sup>73)</sup>에서 1992년 당시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불교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역사학 전공자와 서지학 전공자의 협업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고,<sup>74)</sup> 최근에는 역사학자가 서지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논고를 발표하기도 한다.<sup>75)</sup>

한편 역사학자들의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학자들의 전유물이던 불서의 내용 분석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법계도원통기』<sup>76)</sup> · 『백화도량발원문약해』 등의 화엄 문헌,<sup>77)</sup> 『권수정혜결사문』 · 『계초심학인문』,<sup>78)</sup> 『중편조동오위』,<sup>79)</sup> 『종경촬요』,<sup>80)</sup>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sup>81)</sup>, 『진심직설』<sup>82)</sup> 및 『禪要』 · 『선문염송집』 등의 선 문헌,<sup>83)</sup> 『금강경』,<sup>84)</sup> 『계환해법화경』<sup>85)</sup> 및 『과주묘법연화경』<sup>86)</sup>, 『현행서방경』,<sup>87)</sup> 『공

- 
- 식, 2004, 「몽산덕이의 계경촬요와 교학사상」, 『서지학보』 28.
- 73) 허홍식, 1992,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 『서지학보』 8.
- 74) 남권희 · 최연식, 2000, 「『진심직설』의 저자에 대한 재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남권희 · 박용진, 2016, 「고려후기 『科註妙法蓮華經』의 刊行과 천태종章疏」, 『불교학보』 76.
- 75) 박용진, 2017, 「불교 고문헌 자료 書誌 調査의 諸問題」, 『중앙사론』 46.
- 76) 정병삼, 1997, 「균여 『법계도원통기』의 화엄사상」, 『한국학연구』 7.
- 77) 정병삼, 2010,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저술과 유통- 새로 발견된 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1.
- 78) 채상식, 2010, 「1608년 송광사 중간 『권수정혜결사문』 · 『계초심학인문』 연구」, 『서지학연구』 47.
- 79) 채상식, 2012,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30.
- 80) 채상식, 2014, 「수선사의 『종경촬요』 간행과 사상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50.
- 81) 최연식, 1999,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통해 본 보조삼문의 성격」, 『보조사상』 12.
- 82) 남권희 · 최연식, 2000, 앞의 논문.
- 83) 조명제, 1999, 「고려후기 『禪要』의 수용과 간화선의 전개」, 『한국중세사연구』 7; 조명제, 2010, 「『선문염송집』의 편찬과 『종문통요집』」, 『보조사상』 34; 조명제, 2012, 「선문염송집」의 편찬과 『선종공고연주집』, 『불교학보』 62.
- 84) 채상식, 2015, 「13세기 전반간 행한 『금강경』 사례들과 사상적 의미」, 『식당논총』 61.
- 85) 박광연, 2013, 「고려후기 법화경 계환해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고려후기 천태종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불교연구』 38.

덕소경』<sup>88)</sup> 등의 경전, 『범서총지집』 등 밀교 문헌<sup>89)</sup>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와 거란 등 국제 관계에서 불교 서적 교류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룬다.<sup>90)</sup>

최근 공개된 탑내 유물 및 복장물에 대한 역사학에서의 분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sup>91)</sup> 최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중수기<sup>92)</sup>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고, 그밖에 각종 발원문<sup>93)</sup>을 통해 신앙 내용 및 조성 주체의 성격을 밝혔다. 최근 복장 유물을 다룬 역사학 연구로는 신은제의 논문이 대표적으로, 복장 발원문을 분석하여 발원자들의 사회적 계층을 분석하였다.<sup>94)</sup>

---

86) 남권희·박용진, 2016, 앞의 논문.

87) 남동신, 2005, 「여말선초의 僞經 연구-『현행서방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4.

88) 박영은, 2015, 「고려 후기 『공덕소경(功德疏經)』 신앙의 의의 - 『삼십분공덕소경(三十分功德疏經)』 과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9.

89) 김수연, 2015, 「고려시대 간행 『범서총지집』을 통해 본 고려 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41; 김수연, 2016, 「민영규본 『범서총지집』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사학』 54.

90) 김영미, 2002,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현실』 43; 최연주, 2002, 「12·3세기 曲籍 刊行의 유형과 그 성격」, 『고고역사학지』 17·18; 한기문, 2014, 「고려와 요 문화교류의 양상과 성격」, 『대구사학』 115.

91) 민영규, 1966,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4·15; 허홍식, 1986, 「14세기의 새로운 불복장 자료」, 『문화재』 19; 허홍식, 1993, 「불복장의 배경과 조상경」, 『서지학보』 10.

92) 최연식, 2007,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불교학리뷰』 2; 남동신, 2009,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목간학회 워크샵; 최연식, 2012, 「석가탑 발견 목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불교학보』 61.

93) 진성규, 2011, 「고려후기 사경 발원문의 의의」, 『백산학보』 91; 최연식, 2015, 앞의 논문; 정병삼, 2017, 「고려후기 불교 조영물의 발원 내용에 나타난 불교신앙의 경향」, 『사학연구』 128.

94) 신은제, 2015, 앞의 논문; 신은제, 2016, 「고려후기 복장기록물의 내용과 발원자들」, 『한국중세사연구』 45; 정은우·신은제, 2018, 앞의 책.

아직까지 문헌학적 가치를 밝히지 못한 불교 텍스트들도 많이 있지만, 연구의 방향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텍스트에 담긴 시·공간성과 시대의 사유와 문화를 읽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불교 텍스트 및 이미지를 조성하고 활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러한 자료들이 고려라는 ‘공간’ 속에서 지니는 의미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는 글로벌리즘적 관점<sup>95)</sup>에 빠져 있는 로컬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또한 종파적 관점의 사상사 연구에서 벗어나 문화사 연구로의 확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술사학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미술사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형은 2010년의 논문에서 “미술사학이 기본적으로 작품(혹은 유물)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작품에 대한 실증적 해명이 미술사 연구자의 작업의 전부이거나 사실상의 목표가 되어서는 미술사학이 인문학으로서 설 자리는 없다”고 하였다.<sup>96)</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불교사 연구자들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95) 이승혜, 2014,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96) 이주형, 2010, 「미술사와 인문학적 가치」, 『미술사학연구』 268.

## 참고문헌

### 1. 저서

- 강순애 외, 2006,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 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구산우, 2003,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 연구』, 해안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2009,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교문화재  
연구소  
송일기, 2014,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 순천 조계산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의 조명』, 송광사  
온양민속박물관 편,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온양민속  
박물관  
정은우 · 신은제, 2018,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채응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출판부  
최연주, 2006, 『고려대장경 연구』, 경인문화사  
최영호, 2008,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최영호, 2009,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세종출판사

### 2. 논문

- 강순애, 2005,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전적고」, 『서지학연구』 32  
강순애, 2010,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6  
강순애, 2012, 「고려 팔만대장경 『법원주립』의 판각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51

- 장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미술자료』 18
- 김성수, 2008, 「석가탑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의 간행 연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
- 김성수, 2014,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연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8
- 김성수, 2016,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6
- 김성수, 2017,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 목판인쇄본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2
- 김성수, 2017, 「한국서지학회지 『서지학연구』 게재 불교서지학 논문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중앙승가대대학원연구논집』 10
- 김성수, 2018, 「새로 발견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3
- 김수연, 2015, 「고려시대 간행 『범서총지집』을 통해 본 고려 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41
- 김수연, 2016, 「민영규본 『범서총지집』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사학』 54
- 김영미, 2002,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현실』 43
- 김윤곤, 1996, 「고려대장경의 동아대본과 조성주체에 대한 고찰」, 『석당논총』 24
- 김천학, 2018, 「元曉 『起信論別記·疏』의 전승 조사와 定本化 시도」, 『서지학연구』 73
- 남권희, 2007, 「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 『서지학연구』 36
- 남권희, 2010, 「證道歌字 발견과 『남명천화상증도가』의 연구」, 『서지학보』 36
- 남권희, 2012,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주조법과 인쇄기술사적 분석」, 『서지학보』 39
- 남권희, 2014, 「고려시대 『밀교대장』 권9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사학연구 제132호(2018. 12)

- 남권희, 2016, 「일본 소재 불교 교장문헌의 서지조사」, 『서지학연구』 67
- 남권희, 2017a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소자 총지진언집 연구」, 『서지학연구』 71
- 남권희, 2017b,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다라니와 전적자료」, 『미술사연구』 32
- 남권희 · 최연식, 2000, 「『진심직설』의 저자에 대한 재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 남권희 · 박용진, 2016, 「고려후기 『科註妙法蓮華經』의 刊行과 錢태중 章疏」, 『佛敎學報』 76
- 남권희 · 전재동, 2017, 「제종교장 문헌 연구 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 『서지학연구』 69
- 남동신, 2005, 「여말선초의 僞經 연구-『현행서방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4
- 남동신, 2009,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목간학회 워크샵
- 남동신, 2011, 「안성 칠장사혜소국사비명」, 『한국중세사연구』 30
- 남동신, 2012, 「『금석청완』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
- 문명대, 1985, 「고려 소목불상의 연구 : 원효사 소천불상과 봉림사 목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66·167
- 문명대, 1996,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장 취봉사목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8
- 문명대, 2007, 「수국사 고려(1239년)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5
- 민영규, 1966,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4 · 15
- 박광연, 2013, 「고려후기 범화경 계환해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고려후기 錢태중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불교연구』 38
- 박광현, 2014, 「고려본 『밀교대장』 권61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전적에 대하여(상)」, 『서지학보』 1
-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전적에 대하여(하)」, 『서지학보』 2
- 박영은, 2015, 「고려후기 『공덕소경(功德疏經)』 신앙의 의의」, 『한국사상사학』 49
- 박용진, 2016,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서지학연구』 67
- 박용진, 2017, 「敎藏의 成立과 역사적 변천」, 『서지학연구』 69
- 박용진, 2017, 「불교 고문헌 자료 書誌 調査의 諸問題」, 『중앙사론』 46
- 서병패, 2008, 「안동보광사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 『성보』 10
- 송일기, 2004,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전적고」, 『서지학보』 28
- 송일기, 2010,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본 「화엄경」 연구」, 『서지학연구』 47
- 송일기, 2011a,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서지학연구』 49
- 송일기, 2011b, 「영광 불갑사 복장본 『묘법연화경』 권3의 간년 문제」, 『서지학연구』 48
- 송일기, 2012, 「개운사본 倣本 『화엄경』 권33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1
- 송일기, 2014,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전적 연구」, 『서지학연구』 58
- 송일기·한지희, 2009,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편찬고」, 『서지학연구』 43
- 송일기·정왕근, 2010, 「영광 불갑사 복장 불서의 성격」, 『서지학보』 35
- 송정숙·정영식, 2011, 「『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서지학연구』 50
- 신소연, 2016,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서2』, 국립중앙박물관
- 신은제, 2015,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 발원문과 발원자들」, 『미술사연구』 29
- 신은제, 2016, 「고려후기 복장기록물의 내용과 발원자들」, 『한국중세사연구』 45
- 오영섭, 2013, 「교장의 간행 방식과 망실」, 『서지학연구』 54

사학연구 제132호(2018. 12)

- 옥영정, 2012,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서지학보』 39
- 옥영정, 2012, 「국내 현존 송·원본의 조사와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52
- 유부현, 2010, 「초조장 어제비장전 판화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5
- 유부현, 2010,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문자이동과 교감」, 『서지학연구』 47
- 유부현, 2011, 「고려장(초조장·재조장)의 저본에 대한 일고」, 『서지학연구』 48
- 유부현, 2012, 「『청량담순종심요법문』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비교 고찰」, 『서지학보』 39
- 유부현, 2013,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 윤상기, 2016,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잡전적 연구」, 『서지학연구』 65
- 이승철, 2012, 「『직지』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활자분류 비교」, 『서지학보』 39
- 이승혜, 2014,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 이완우, 2012, 「신출 금속활자와 고려시대 서예사」, 『서지학보』 39
- 이용윤, 2012, 「불상불안의식의 정수, 복장」, 『불복장의식의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 이주형, 2010, 「미술사와 인문학적 가치」, 『미술사학연구』 268
- 임기영, 2009, 「해인사 寺刊板殿 소장 목판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임기영, 2014,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서지학연구』 58
- 임혜경, 2012,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과 그 의의」, 『한국사론』 58
- 정 각, 2010, 「영광 불갑사 불복장 의식관계 전적」, 『서지학보』 35
- 정 각, 2017, 「갑사 소조보살입상 腹藏 백지묵서사경 고찰 試論-일승법계도와 표훈대덕발원문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46

- 정병삼, 1997, 「균여 『법계도원통기』의 화엄사상」, 『한국학연구』 7
- 정병삼, 2006,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 승려 비문의 문도 구성」, 『한국사연구』 133
- 정병삼, 2010,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저술과 유통-새로 발견된 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1
- 정병삼, 2011,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27
- 정병삼, 2011, 「고려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30
- 정병삼, 2012, 「문수사장경비와 원 간섭기 불교신앙의 한 경향」, 『한국문화』 60
- 정병삼, 2017, 「고려후기 불교 조영물의 발원 내용에 나타난 불교신앙의 경향」, 『사학연구』 128
- 정은우, 2011, 「1383년명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 『삼성미술관 리움 연구논문집』 6
- 정은우, 2013, 「西日本地域の 高麗佛像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 『동양미술사학』 14
- 정은우, 2017,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32
- 조명제, 1999, 「고려후기 『禪要』의 수용과 간화선의 전개」, 『한국중세사연구』 7
- 조명제, 2010, 「『선문염송집』의 편찬과 『종문통요집』」, 『보조사상』 34
- 조명제, 2012, 「『선문염송집』의 편찬과 『선종공고연주집』」, 『불교학보』 62
- 진성규, 2011, 「고려후기 사경 발원문의 의의」, 『백산학보』 91
- 채상식, 1980, 「인각사 보각국존일연비 음기에 대하여」, 『어문연구』 8
- 채상식, 1982, 「정토사법경대사비 음기의 분석」, 『한국사연구』 36
- 채상식, 2010, 「1608년 송광사 중간 『권수정혜결사문』·『계초심학인문』 연구」, 『서지학연구』 47
- 채상식, 2012,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30

사학연구 제132호(2018. 12)

- 채상식, 2013, 「『고려국신조대장교장별록』의 편찬과 자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46
- 채상식, 2014, 「수선사의 『종경촬요』 간행과 사상적 의의」, 『한국민족문화』 50
- 채상식, 2015, 「13세기 전반기 간행한 『금강경』 사례들과 사상적 의미」, 『석당논총』 61
- 최성은, 2008, 「13세기 목조아미타불상과 복장묵서명」, 『한국사학보』 30
- 최연식, 1999,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통해 본 보조삼문의 성격」, 『보조사상』 12
- 최연식, 2007,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불교학리뷰』 2
- 최연식, 2010, 「해남 대흥사소장 ‘탑산사동종’ 명문의 재검토」, 『목간과문자』 6
- 최연식, 2012, 「석가탑 발견 목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불교학보』 61
- 최연식, 2015,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신앙 내용과 제작 주체-발원문 내용의 검토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9
- 최연주, 2002, 「12·3세기 曲籍 刊行의 유형과 그 성격」, 『고고역사학지』 17·18
- 최연주, 2005,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고문화』 66
- 최영호, 1997, 「해인사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의 판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 최영호, 1999, 「해인사소장본 『大藏一覽集』 刻成 시기의 재검토와 판각의 현실관」, 『한국중세사연구』 6
- 최영호, 2012, 「해인사에 소장된 江華京板 『고려대장경』의 ‘外藏 연구 2 : 高麗經板의 조성성격」, 『문물연구』 22
- 최영호, 2016, 「해인사대장경판(海印寺大藏經板)에 포함된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보존방안」, 『문물연구』 30

- 최종남, 2017, 「天台四教儀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 연구-해인사증각본, 기복도감본, 대정장본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 한기문, 2000, 「백련사지 출토 고려 청동유물의 명문-백련결사의 참여층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
- 한기문, 2005,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 후기 선종계의 동향」, 『문화사학』 24
- 한기문, 2014, 「고려와 요 문화교류의 양상과 성격」, 『대구사학』 115
- 허홍식, 1982, 「한국 금석문의 정리현황과 전망」, 『민족문화논총』 2·3
- 허홍식, 1984, 「용수사개창기로 본 12세기 후반 화엄종의 단면」, 『석림』 8
- 허홍식, 1986, 「14세기의 새로운 불복장 자료」, 『문화재』 19
- 허홍식, 1989, 「지공의 사상형성과 현존저술」, 『동방학지』 61
- 허홍식, 1989, 「호산록의 새로운 사본과 보완」, 『대구사학』 36
- 허홍식, 1990, 「고려고종관판대장경의 조성경위와 사상성」, 『역사교육논집』 13·14
- 허홍식, 1991, 「의천의 원종문류와 廓心の 집해」, 『서지학보』 5
- 허홍식, 1991, 「지공의 무생계첩과 무생계경」, 『서지학보』 4
- 허홍식, 1992,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 『서지학보』 8
- 허홍식, 1993, 「보조국사비문의 이본과 탁본의 접근」, 『서지학보』 9
- 허홍식, 1993, 「불복장의 배경과 조상경」, 『서지학보』 10
- 허홍식, 1993, 「수선사증창기의 사료 가치」, 『고문서연구』 4
- 허홍식, 1993, 「진각국사 혜심의 原碑와 해석의 보완」, 『정신문화연구』 16-1
- 허홍식, 1994, 「임유정의 『백가의집』」, 『서지학보』 12
- 허홍식, 1995, 「몽산덕이의 『直註道德經』과 그 사상」, 『정신문화연구』 18-4
- 허홍식, 1998, 「삼교어록의 서지와 사상적 특징」, 『서지학보』 22
- 허홍식, 2004, 「몽산덕이의 제경활요와 교학사상」, 『서지학보』 28
- 허홍식, 2005, 「三敎語錄의 서지와 장서각본의 중요성」, 『장서각』 13

## Abstract

# Recent research results and utilization of Buddhist bibliography related to the Goryeo period

Park, Kwang-young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check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Goryeo period in commemoration of the 1100th year of Goryeo Kingdom. I introduc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Goryeo period in Buddhist bibliography and organized the Buddhist texts written in the Goryeo period.

There are many Buddhist texts in Korea's ancient and medieval tex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uddhist texts and research trends i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bibliographical journal since 2002.

First of all, I briefly explained the recent direction of research on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and Gyojang(教藏). Next, I collected th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Buddha Statue (腹藏典籍). Finally, I treated other Buddhist texts (rituals, etc.)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Tripitaka Koreana and th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Buddha Statue.

In the future, I hope that those who study Goryeo period in various fields will be interested in the Buddhist texts such as th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Buddha Statue.

Keywords : Buddhist bibliography, Buddhist texts,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Gyojang(教藏),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Buddha Statue(腹藏典籍),  
rituals, Goryeo period, Interring Objects